

초고령사회 일본의 과제

재해 부흥학의 관점에서 생각하다

야마 요시유키

2022년 11월 29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세미나에서 “재해로부터 부흥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할 기회가 있었으며 그 인연으로 『일본비평』 28호에 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준 일본연구소와 편집위원회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수년에 걸쳐 진행해 온 재해 부흥에 관한 실천적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초고령사회 일본의 지역 현황에 관한 현황과 과제 및 금후 전망에 대해 고찰하려 합니다.

1. ‘부흥’이란 무엇인가

1995년 1월 17일에 일어난 한신아와지대진재(阪神淡路大震災)에서는 6,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필자가 속해 있는 간사이가쿠인대학(関西学院大学)에서도 23명의 교직원이 사망했다. 피해지역 대학의 사

야마 요시유키(山泰幸) 간사이가쿠인대학(関西学院大学) 재해부흥제도연구소(災害復興制度研究所) 소장. 간사이가쿠인대학 인간복지학부 교수. 초고령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방재·감재 마을 만들기, 재해 부흥,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주제로 주민·행정·NPO 등과 연대해 장기 밀착형 필드워크에 기반한 실천적 연구를 하고 있다. 재해부흥제도연구소에는 설립 준비단계부터 관여해, 2016년 4월부터 부소장을 역임, 2022년 4월에는 소장으로 취임했다. 국립민족학박물관(国立民族学博物館) 특별객원교수, 교토대학 방재연구소 객원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도쿄대학 대학원 객원교수,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객원교수, 베이징외국어대학 베이징 일본학연구센터 객원교수, 파리제7대학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https://doi.org/10.29154/ILBI.2021.25.166>

회적 책임으로서 10년 후인 2005년 1월 17일 재해부흥제도연구소(災害復興制度研究所)가 설립되었다. 필자는 이 연구소의 설립 준비 단계부터 관여해 2016년 4월부터 부소장, 2022년 4월부터는 소장을 맡고 있다.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에서는 자연과학 분야의 ‘방재’(防災) 연구는 성행했으나, 재해 이후의 ‘부흥’에 관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당시 본 연구소는 일본 최초로 ‘재해 부흥’을 내건 연구소로서 출발했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의 재해 관련 연구소로서는 일본 최초였다. 한신아와지대진재에서 다수의 교원이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재해 부흥이나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통감했고, 일단 법 제도 연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재해 부흥 기본 법안·시안(2010)」과 「피해자 종합지원 법안(2019)」 등을 작성·제안했다.

2023년은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간토대진재(關東大震災, 관동대지진)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이다. 간토대진재 때는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1857~1929)가 주창한 ‘제도(帝都) 부흥’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도시 재개발형 부흥 개념이 등장해, 국가 주도의 하향식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도시 재개발형 부흥 개념은 1995년 한신아와지대진재의 ‘창조적 부흥’으로 이어져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 2011), 구마모토지진(熊本地震, 2016)까지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개발형 부흥사업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피해지 고베시(神戸市) 신나가타역(新長田駅) 주변은 재개발로 고층빌딩이 들어서 밖에서 보면 부흥한 듯 보이지만, 반면 땅값이 오르고 원래 주민들이 살 수 없게 되면서 마을이 활기를 잃었고 결과적으로 지자체에도 큰 적자를 가져왔다. 구마모토지진의 피해지에서도 도로 확장 공사와 구획 정리로 인해 피해자인 주민들이 집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피해자생활재건지원법이 있는데, 주택의 피해 정도 판정에 따라 주택 재건 지원금을 받는 집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인데도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집도 있다. 그 격차로 인해 불공평하

다는 감정이 쌓여 인간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삶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상실하는 것이다. ‘부흥 재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향식 부흥사업으로 인해 피해자는 오히려 이차 피해를 겪는다. 간토대진재 이래 거액의 공공사업을 투입하는 도시 재개발형 부흥 개념은 참사 편승형의 부흥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간토대진재 당시, 하향식 도시 재개발형 ‘제도 부흥’에 대해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경제학자 후쿠다 도쿠조(福田徳三, 1874~1930)는 피해자 중심의 ‘인간 부흥’이라는 사고방식을 전제로 피해자의 ‘생활 재건’에 중점을 두는 주장을 펼쳤다. 본 재해부흥제도연구소에서는 후쿠다 도쿠조의 ‘인간 부흥’을 연구소 이념으로 계승해, 피해자 ‘생활 재건’을 위한 법률 정비를 비롯해 커뮤니티 재생과 마음 케어 등의 활동에 주력해 왔다.

2. 피해자로서의 고령자

한신아와지대진재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는 ‘재해관련사’(災害関連死)였다. ‘재해관련사’란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된 사망자와는 별도로, 생존자 중 피난소 생활 등에 의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재해 이후 사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지진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는 특별히 ‘진재관련사’(震災関連死)라 부르기도 한다. 한신아와지대진재에서는 약 6,400명의 사망자 중 약 940명, 2011년 3월 동일본대진재에서는 약 2만 2,000명의 사망자·행방불명자 중 약 3,700명이 재해관련사였다. 2016년 4월 구마모토지진에서는 재해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자 수는 50명이었는데 재해관련사는 200명을 넘어, 오히려 재해관련사가 많았다. 게다가 그 대부분은 고령자였다.

일본에서는 1970년에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인구의 7%를 넘

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한신아와지대진재가 발생한 1995년에는 고령화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그리고 2007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인구의 21%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돌입했다. 그 후로도 고령화율은 계속 상승해, 2021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8.9%, 실로 30%에 가까워졌다.

한신아와지대진재 때는 65세 이상 사망자 비율이 43%를 넘어, 인구 대비 약 3배의 고령자가 사망했다. 2018년 7월의 서일본 호우 재해 때는 오카야마현(岡山県) 구라시키시(倉敷市) 마비초(真備町)에서 51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48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였다. 이처럼 재해에 의한 직접사, 재해관련사를 불문하고 고령자가 가장 피해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신아와지대진재는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일본의 재해 대응 과제로서 재해 약자인 고령자 증가에 따른 피난 문제, 피난 이후의 피로와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막기 위한, 즉 네트워크 회복과 커뮤니티 재생 및 마음 케어 등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초고령사회로 돌입한 이후에 발생한 2011년 동일본대진재, 2016년 4월 구마모토지진, 2018년 서일본 호우 재해에서 고령자 재해 대응이라는 과제는 더욱 명확해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간토대진재 이래 ‘제도 부흥’에서 ‘창조적 부흥’까지 ‘위기’ 담론을 내세움으로써 참사 편승형의 도시 재개발형 부흥사업이 진행되어 온 것처럼, ‘부흥’ 개념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현재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다. 재해로부터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재해관련사가 나오는 것인가, 왜 그 대부분이 고령자인가? 이 점에 주목한다면 ‘초고령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문제시하는 ‘위기’ 담론은 국가의 이해관계에 규정된 정치적 언설로서 작용할 뿐, 정작 피해자=고령자의 목소리는 닿지 않고 주변화되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지역 부흥과 마을 만들기

초고령사회의 경우, 재해지는 대부분 재해 이전부터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는 지방일수록 더 심각하다. 지역사회에 활력이 있다면 재해 이후의 부흥만 생각하면 되지만, 이미 약체화되어 있는 지역에 재해가 한번 닥치면 부흥을 향한 힘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재해를 계기로 소멸해 버리는 마을도 있다.

여기서 ‘사전 부흥’이라는 사고방식을 소개하고 싶다.¹ 사전 부흥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상정하고 피해를 되도록 줄이기 위해 사전에 도시계획이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하드 계열의 방재(防災)·감재(減災)라는 발상의 연장에서 나온 생각이다. 쓰나미 침수 예상 구역에서 공공시설을 미리 고지대로 이전하는 등 ‘사전 부흥 마을 만들기’라 불리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부흥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순서나 절차, 지식, 정보, 인재(人材) 등을 확인해 두고 나아가 미래의 부흥 비전을 지역에서 공유하는 등의 준비를 사전에 해 두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 주민이 피해를 상정하고 지역의 약점을 스스로 찾고 인식한 다음, 그 극복방안을 스스로 생각해서 피해 전부터 실행하는 것도 사전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과소화가 심각한 지역은 과소화 자체를 ‘또 하나의 재해’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면서 지역 부흥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해 후의 부흥을 시야에 두고 사전에 대비하는 일이 요구된다. 자연재해와 과소화라는 복합재해에 대해, 이종의 ‘지역 부흥’에 사전 대처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마을 만들기’ 대응이다.

1 山泰幸, 「災害多発時代に命と暮らしを守る: 防災・減災と復興」, 岩本通弥 他 編, 『民俗学の思考法』, 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21.

필자는 2009년부터 과소 지역의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장기 밀착형 필드워크에 기반한 실천적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여기서는 도쿠시마현(徳島県) 서부에 있는 히가시미요시초(東みよし町) 산간부 마을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² 2009년 7월 말 당시 가구 수는 15호 29명이었는데, 현재는 그 70% 정도이며 전원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이 마을은 평지와 길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집중호우나 폭설 등의 재해로 도로가 끊기고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마을 자치회장이 비상시 식수 확보를 위해 저수탱크를 설치했다. 게다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개간하고 최종적으로는 구청, 현청, 자위대 협력까지 끌어내 긴급 의료용 헬리포트를 조성했다. 또한 80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던 인형극용 농촌 무대를 보수해서 인형극 부활 공연을 실현하기도 했다. 그 후 인형극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취미로 하는 음악 동호회와 무용(阿波踊り) 동호회가 출연하는 지역 예술제를 매년 마을 주민의 개최로 열고 있다.

예술제 개최와 방재 활동은 관공서의 담당 부서도 다를뿐더러 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도 각기 다르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양쪽 모두 마을을 지킨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 활동이다. 왜냐하면 예술제의 표면적인 목적은 교류 인구를 늘려 과소화가 진행 중인 마을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치회장의 의도는 인근 지역에서 찾아오는 출연자나 관광객과 인연을 만들어, 미리부터 재해에 대비하고 과소화에 의한 마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에 지원자를 마련해 두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 각지의 과소 지역에서 마을의 존망을 걸고 이와 같은 지역 부흥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 山泰幸, 「災害多発時代に命と暮らしを守る: 防災・減災と復興」.

4. 철학 카페

필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과소 지역의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주민, 행정, NPO와 협력하면서 오랜 기간 실천적 연구에 임해 왔다. 그러나 한계도 느끼고 있었다. 개별 문제에 이른바 ‘대처 요법’만 적용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지역 내부에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 이유는 사회적인 문제나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인생 고민 등 소위 ‘진지한’ 화제는 말하는 사람도 주저하고 듣는 사람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너가 아니라고 금기시된 것 같다. 하지만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도, 하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행동하는 일도 있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필자가 근년에 하고 있는 것이 ‘철학 카페’(Café Philosophique)다. 이하 간단히 소개해 보겠다.³

프랑스 파리에선 일요일 아침 카페에 사람들이 모여 온갖 주제에 관해 대화하는 ‘철학 카페’가 있다. 음료값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기 이름을 낼 필요도 없지만 일정한 규칙이 있다. 어떤 의견이라도 말해도 좋으며 듣기만 해도 상관없다. 하나의 결론을 내거나 합의를 볼 필요도 없다. 여러 의견을 참가자가 공유할 뿐이다. 필자는 파리 유학 중에 철학 카페에 다니면서 이것이야말로 마을 만들기에 도움이 되리라 직감했고, 귀국 후 일본 각지의 마을 만들기 현장에 도입했다.

먼저 필자가 사는 효고현(兵庫県) 니시노미야시(西宮市)에서 2014년부터 월 1회 철학 카페를 열었다. 거기에서 반응을 확인한 후, 도쿠시마현 히가시미요시초에도 2015년 12월부터 철학 카페를 도입, 3개월에

3 山泰幸, 「語り合う場のデザイン: 哲学カフェの試みから」, 『DPRI NEWSLETTER』101号, 京都大学防災大学研究所, 2022.

한 번 마을에 있는 카페 파파라기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참가자는 매회 20명 내외로, 많을 때는 40명을 넘기도 한다.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현 안팎에서 방문한다. 최근에는 국내외 연구자의 참가도 늘고 있다. 2023년 3월이 되면 벌써 30회째를 맞이한다.

철학 카페에서는 참가자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때로 웃음소리가 나거나 떠들썩하기도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마치면 박수로 채워진다. 주제는 제1회 ‘지(知)으로 시작해 ‘일’, ‘놀이’, ‘상식’ 등 매회 다양하다. 예를 들면 제 17회 주제는 ‘재해’였다. 이쪽에서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재해’가 주제로 정해져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철학 카페가 흥미로운 것은 서로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가 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에는 그저 동의만 하는 행정 주최의 주민 설명회와 주민 조직인 자치회·반상회밖에 없다. 거의 모든 사람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묻거나 상대를 논파하는 토론 이외에는 이야기 경험이 없다. 즉, 이야기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철학 카페 참가를 통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지역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철학 카페를 마을 만들기를 위한 토양 만들기, 체질 개선을 위한 ‘한방요법’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5. 지역 데뷔

한편 필자는 전후에 도시 교외의 대규모 뉴타운으로 개발된 효고현 다카라즈카시(宝塚市)의 노인복지센터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철학 카페를 열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월 1회 정례로 개최해, 코로나 사태로 1년 정도 휴지기가 있었지만 2023년 1월에 40회째를 맞는다.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⁴

이 노인복지센터에서는 60세 이상의 다카라즈카 시민에 대해 연간 예술, 건강, 취미 등의 각종 강좌나 이벤트를 개최하며 고령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한다. 필자는 2009년 무렵부터 일 년에 몇 차례 평생학습 교양강좌 강사로 이 노인복지센터와 연이 있었는데, 몇 해 전에 담당자가 상담을 청했다. 노인복지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강좌의 이벤트 참가자는 대다수가 여성으로 남성 참가자가 매우 적어서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필자는 철학 카페의 경우, 다른 지역 활동에 비해 정년퇴직 후의 남성 참가자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 고령자의 사회 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로서 노인복지센터와 협력해서 철학 카페를 정기적으로 열게 되었다. 그 결과, 십수 명에서 20명 정도의 참가자 중 대다수가 남성이라 담당자를 놀라게 했다. 그 후 월 1회 정례로 철학 카페를 열었는데, 매번 참가자의 3분의 2 정도가 남성이었다. 그 밖의 강좌에는 여성만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이로운 결과로, 고령자 복지 전문가로부터 주목받기도 했다.

일본이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2007년은 이른바 ‘단카이세대’(団塊世代)(1947~1949년생)라 불리는 베이비 붐 세대가 60세를 맞이하는 시기와 겹친다. 도시에 거주하는 샐러리맨으로 인생의 대부분 시간을 직장에 몸 바쳐 온, 이른바 ‘회사인간’의 다수는 남성이다. 그들이 정년퇴직 후 그때까지 거의 관계를 맺지 않았던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 데뷔’를 시작한 시기다. 연금 전액이 지급되는 65세까지 정년 연장이 정착되었다고는 해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 정년 후 지내는 시간은 상당히 길어졌다. 그렇지만 인생 대부분을 ‘회사인간’으로 지내면서 지역과의 관계가 거의 없었던 사람이 60세가 넘어 갑자기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 주

4 山泰幸, 「超高齢時代のまちづくり: 地域コミュニティと場づくり」, 岩本通弥 他 編, 『民俗学の思考法』, 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21.

민들과 새로 인간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육아를 통해 아이 엄마들과 교체하고, 일 때문에 참가하지 못하는 남편 대신 학부모(PTA) 활동이나 자치회·반상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온 여성 대다수가 주부다. 그들은 지역사회에 지인도 많고 오랜 세월 동안 끈끈한 인간관계를 지역 안에서 쌓아 왔다. 각종 시민강좌나 공민관(公民館) 활동, 취미 동호회 활동이나 지역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롭게 인간관계를 넓혀 가면서 그때까지의 지역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노후 생활을 즐긴다. 그러나 직업을 갖고 직장 중심의 생활을 보냈던 여성의 경우, 정년 후 지역 활동 참가는 정도의 차는 있어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정년 후 보내는 시간의 길이를 생각하면 사회 참가의 성패가 남은 인생의 충실도를 상당히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필자는 고령자가 지역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배경에 고학력 고령자의 증가 같은 저해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카이세대는 남성의 대학 진학률이 20%를 넘어, 현재 65세 남성의 경우 40%가 대학 진학자다. 말하자면 대졸 고령자 수가 해마다 증가해, 이들 고학력 고령자는 지역의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고령자 대상의 취미나 오락 활동에 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혹은 그러한 활동에 참가하더라도 공감대가 맞는 대화 상대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들 대다수가 대학 진학과 취직을 계기로 지방에서 도시로 나와 오랜 기간 ‘회사인간’으로 지냈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지역사회와는 아무런 연결이 없다. 회사에서 나뉘는 일을 했던 자부심도 있고 또는 다수의 부하직원을 통솔하는 관리직까지 올랐던 사람이나 사회적으로도 인정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자인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구나 60세가 넘어 마치 신입사원처럼 지역사회에 들어가기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입사 연차나 직책에 따라 상하관계가 분명한 회사의 인간관계와는 달리, 지역사회에서는 주민들끼리 기본적으로는 대등하

다. 상사가 부하에게 지시하듯 상대를 움직일 수는 없다. 하물며 자신의 현역 시절 지위나 입장을 드러내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지식을 꺼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본인으로서의 직장에서 익힌 상식을 말했을 뿐이거나 혹은 단순히 자기소개를 할 요량이었다 해도, 주변에서는 견제하며 자랑하는 사람으로 여겨 가까이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회사인간’이 지역에 섞이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요컨대, 회사 생활과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 때문에 지역사회와 처음 접촉하는 단계에서 인사조차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서먹해지거나 오해가 생기고 좌절해 버리는 원인이 된다.

6. 나가며

철학 카페의 특징은 ‘철학’이라는 난해한 학문을 연상시키는 말을 붙임으로써 지적 관심이 높은 층도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 쉬운 분위기가 있다. 실제로 거기에서 이야기되는 화제도 추상도가 높은 주제를 다루고, 일상 회화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개념어도 구사하며 논리적이고 명쾌한 표현이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 커뮤니티 중에서는 예외적 장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폭넓은 층의 사람들이 참가해, 개중에는 이야기 흐름상 생각난 사건이나 에피소드를 소개만 하는 사람도 많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횡수를 거듭해 감에 따라 점차 전후의 문맥을 제시하며 화제를 자리매김하면서 이야기하게 된다. 한편 이치만 따지던 사람도 점차 일상의 친근한 예시를 들어 설명을 덧붙이며 이야기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철학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좀 더 일반화해서 말한다면,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조정해 가며

함을 맞추는 작업이다. 일종의 이문화(異文化) 간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라 해도 좋으리라.

철학 카페 운영 초기에는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거나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고 하는 사람, 교양이나 지식을 과시하며 겉으로만 전문 용어를 내세우는 사람, 주제와 무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계속하는 사람, 현역 시절 직함이나 활약상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끔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 담당자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횡수를 거듭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둘러싸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참가자 모두가 협력함으로써 기분 좋고 충실한 시간이 되도록 그 장소를 만들어 갔다. 나아가 선배 참가자들이 신입 참가자를 잘 이끌어 그 장소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필자가 주최하는 철학 카페에서는 상대방 의견을 비판해도 좋지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규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인격을 상호 존중하며 ‘경의’를 표한다는 뜻이다. 그로써 체면을 과다하게 지킬 필요가 없어져 안심하고 차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향후 고령화는 더욱더 진행될 것이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고령자가 지역 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역사회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익히기 위한 이야기의 장(場)을 의식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기후변동에 따른 재해 다발 시대를 맞아 가까운 장래에 수도 직하형(首都直下型) 지진이나 난카이해곡거대지진(南海トラフ巨大地震) 등에 의한 대규모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해 대응에 한정해 볼 때 초고령사회 일본이 안고 있는 과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초고령사회를 맞은 일본의 지역 현장에서 이야기의 장을 어떻게 디자인할지가 핵심과제가 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금후 일본 이상으로 고학력 고령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상과 같은 일본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 한일 간 상호 이해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 이 글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배관문(원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에 의해 번역되었다.